

#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핑크색이미지 연구

김현아\* · 이효진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전공 교수

## A Study on the Pink Color Image Expressed in the 21th Century Men's Fashion

Hyun A Kim\* · Hyo Jin Lee

Doctoral Cours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1. 서론

21세기에 들어 남성의 이미지는 메트로섹슈얼, 크로스섹슈얼 등의 문화현상에 의해 강하고 거친 이미지의 남성보다 부드럽고 섬세한 남성의 이미지가 선호되고 있다. 이에 남성들은 의복을 통해 자유로운 감성과 개성을 추구하고 내면의 미적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TV·잡지·광고 등 대중매체 속에서 과거와는 달리 부드럽고 연약하며 아름다운 이미지의 남성들이 넘쳐남으로써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최근 남성들은 섬세하고 유연한 세련된 감성과 취향을 가진 남성들이 두드러짐으로서 특히 남성패션에서 색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패션에서 색은 그 시대의 문화와 트렌드를 반영하며 디자인의 구성 요소 중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강하고 빨라서 이미지 전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더욱이 21세기는 컬러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색은 언어보다 가장 쉽고 빠르게 지각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서 즉각적이고 감성적으로 어떤 형태보다 표현적인 힘이 강하다. 이처럼 의복에서 가장 먼저 반응하는 요소인 색 중에서 핑크색은 여성을 대표하는 색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남성패션에서 의복뿐만 아니라 신발, 가방 등 다양한 아이টে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핑크색은 유아적이며 나약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베이비 핑크(baby pink)에서 자극적이면서 색시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스키피아파렐리(Schiaparelli)의 쇼킹핑크(shocking pink)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남성패션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패션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핑크색의 이미지나 조형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핑크색이미지의 개념과 역사적 고찰을 통해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핑크색이 어떠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미래남성복의 디자인 및 조형성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함에 그 의의를 두었다.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연구범위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방법은 문헌자료를 통한 이론적 고찰과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자료는 핑크색이미지의 개념과 남성복에 나타난 핑크색이미지의 역사적 고찰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국내·외 서적, 패션 전문지 등의 간행물, 신문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내용분석은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핑크색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사진들은 주요 패션관련 인터넷 사이트 [www.samsungdesign.net](http://www.samsungdesign.net), [www.style.com](http://www.style.com) 등을 통해 수집하였으며 사진선정은 정확한 분석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 의류학 전공 대학원생 5명이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쳐 선택하였다.

### 3. 핑크색이미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1 핑크색이미지의 개념

핑크색은 적색 계통의 밝고 옅은 색의 범위를 핑크색(pink : pale red color)이라고 한다. 핑크색은 색상, 명도, 채도의 특성에 따라 아주 미묘한

감정적인 차이를 나타내므로 자극적인, 고요한, 부드러운, 명랑한, 강한, 우울한 등의 이미지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진하고 강한 색은 딱딱해 보이고 옅은 색은 부드러워 보이며 색이 연하면 유치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아해 보인다. 또한 심리적으로 핑크색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다른 색에서 찾아보기 힘든 온화함과 친숙함이 배어 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핑크색은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색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셀 표색계를 기준으로 핑크색에 해당되는 범위를 v-PK, s-PK, dp-PK, l-PK, m-PK, d-PK, p-PK, gy-PK, pkW, pkGY 하며 여기에 핑크색의 양쪽에 황색계 핑크색으로 명명되는 25-vivid yPk, 26-strong yPk, 28-light yPk, 29-moderate yPk, 30-dark yPk, 31-pale yPk, 32-grayish yPk, 33-brownish yPk과 자주색계 핑크색으로 명명되는 246-brilliant pPk, 247-strong pPk, 248-deep pPk, 249-light pPk, 250-moderate pPk, 251-dark pPk, 252-pale pPk, 253-grsyish pPk를 추가하고 이외에도 펄(pearl)이 들어간 핑크까지를 포함한다.

### 3.2 남성복에 나타난 핑크색 이미지의 역사적 고찰

남성복에 있어서 핑크색의 사용은 로코코시대 이후 두드러졌으며 파스텔 색의 시대인 로코코시대에는 ‘폼파도르 핑크(Pompadour pink)’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 핑크색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입었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적인 색으로 여겼다. 그 당시 그림을 보면 분홍색 비단셔츠를 입은 남자들이 많으며 여자들은 하늘색 드레스를 많이 입고 있다.

20세기에 와서 핑크색은 그 시대의 예술사조와 시대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 왔다. 가장 환상적인 색조로서 매 시즌마다 널리 활용되고 있는 쇼킹 핑크는 초현실주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엘사 스키아빠렐리가 1931년에 처음 선보였다. 1950년대에는 전후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반영한 부드러운 파스텔 색조가 나타났고 1960년대에는 피코크 혁명으로 화려한 색의 셔츠 및 핑크 넥타이 등 남성복은 밝아지고 부드러워지며 느슨해졌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슈트나 재킷을 선보였고 핑크색

이 노랑색, 주황색, 적색등과 함께 이국적인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처럼 핑크색이 유행하면서 일반화 되었으며 녹색, 파랑, 보라, 빨강색 등과 함께 하나의 유행색으로 합류하였다.

## 4. 결론

21세기 남성패션에 나타난 핑크색이미지를 분석해보면, 모던 페미닌(Modern Feminine), 어반 이그조틱(Urban Exotic), 네오 에로틱(Neo Erotic)이 이미지로 분석하였다.

첫째, 모던 페미닌 이미지는 여성스런 섬세함과 부드러움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표현한 남성의 이미지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와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주는 라이트(light), 페일(pale) 톤의 붉은 기미의 핑크색을 주로 사용하여 여성의 이미지가 남성에게 보다 풍요롭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어반 이그조틱 이미지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신비로운 분위기로 표현하여 색다른 멋을 부각시킨 감성이미지이다. 이 이미지는 형태적인 측면보다 색과 문양의 사용이 두드러지는데 밝고 대담한 꽃무늬와 신비적인 프린트 및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이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또한 배색에서도 핑크색이 빨간색과 금색, 비비드한 녹색과 보색배색으로 환상적이고 이국적인 남성의 이미지가 나타났다.

셋째, 네오 에로틱 이미지는 기존의 에로틱한 이미지와는 달리 연한 핑크색이 피부를 떠올리기 때문에 에로틱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또한 비비드한 핫핑크색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관능적인 여성미를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시스루소재와 광택나는 새틴소재를 이용하여 남성의 신체 라인을 은밀히 드러냄으로서 강렬한 핑크색으로 자극적으로 표현하였다.

## 참 고 문 헌

- 안향신 (1993) 현대복식에 표현된 색채상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바헬러 (1989) 색의 유희. 이영희 옮김(2002). 서울: 예담.